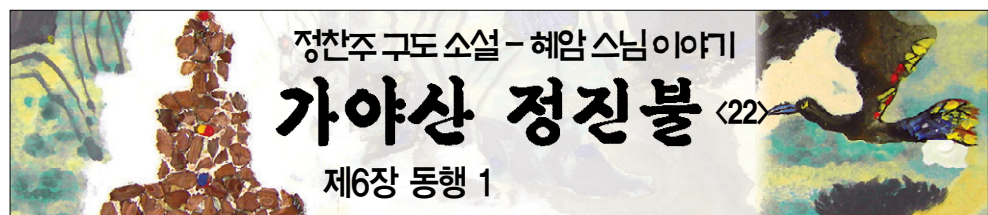


‘공부하다 죽으리라’ 각오로 사고암서 정진 ‘화두타파’



대연 거사는 월정사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세웠다. 만나기로 약속한 현각 거사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대연 거사가 자신의 공방에서 월정사까지 달려온 것은 해암 스님이 수행했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오대산에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중심으로 많은 암자가 있는데, 해암 스님은 젊은 날 오대산의 여러 암자에서 정진했던 것이다.

또 하나 더 이유가 있다면 원당암 무생교에서 자신에게 장좌불와를 권유했던 그 노승을 만나고 싶었다. 원각 스님은 그 노승을 굳이 만날 필요가 있는 나고 했지만 대연 거사는 언젠가 한번 볼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접지 않았다.

현각 거사가 약속한 시각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연식이 좀 오래된 승용차 한 대가 대연 거사가 서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현각 거사는 턱수염을 기른 채 개량한복을 입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그와 구면이었으므로 반갑게 다가와 말했다.

“해암 큰스님 생가 터에서 봤을 때보다 더 맑아진 것 같습니다.”

“대연 거사님도 그렇습니다. 작품은 많이 했습니까.”

“이번 가마에 들어갈 작품들을 초벌구이 끝내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도 진주에서 재가불자들 선방을 2층째 올리다 말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직접 제가 제작한 황토벽들로 짓고 있습니다.”

현각 거사는 오래 전에 환속했지만 그의 일상은 수행자와 흡사했다. 아침저녁으로 목탁을 치면서 도량식도 하고, 해암 스님에게 탄 화두를 아직도 들고 있었다. 최근에는 사재를 털어 진주시와 산정군의 경계에 있는 지리산의 발(尾)과 같은 수미산 일부를 사들여 해암 스님의 선풍을 일으키고자 스스로 재가 선방을 짓고 탑을 쌓는 등등 열정을 쏟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풍수의 문외한이지만 그가 재가선방을 짓고 있는 산이 지리산의 발에 해당한다는 말에 흥미를 느꼈다.

부처는 평생 맨발로 걸어 다니며 세상 사람에게 가르침을 줬던 것이다. 그러니 맨발은 중생제도의

가며 수행했던 사실에서 오는 혼란인지도 몰랐다.

해암 스님이 확철대오한 오대산 사고의 토굴은 스님에게는 수좌로서 분기점이 되는 곳이었다. 해암 스님이 토굴에서 어떻게 정진했고, 깨달음의 경계가 어땠는지 스님의 상좌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해암 스님을 추모할 때면 누구나 예외없이 이 부분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얘기하곤 했다.

대연 거사도 원각 스님이나 각인 스님에게 여러 번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해암 스님은 그 무렵에 오대산과 설악산, 그리고 태백산의 암자를 오가며 용맹 정진하던 중 1957년 초겨울 ‘공부하다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고의 토굴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곳이 바로 사고암(史庫庵)이었다.

당시 겨울철의 사고암은 칼바람이나 겨우 막는 흙벽에, 지붕에는 마른 풀을 얹은 움막으로 기온이 내려가면 방 안의 온도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렸다. 방안이나 부엌이나 늘 얼음이 얼어 있었다. 해암은 한 끼니에 잣나무 생강과 콩 10개씩을 먹으며 버텼다.

방에 불을 때는 일도 없었다. 나무 하는 시간이 야갑고 방이 따뜻하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았다. 화두삼매를 잃지 않기 위해 참선 공부 이외의 것들은 모두 잘라버렸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장좌불와를 하고 있으면 얼음장 위에서 가부좌를 튼 것처럼 정신이 바짝 나고 수미가 저만치 달아났다.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초인적인 고행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드디어 4개월째가 되었다. 졸음이 사라졌다. 수면이란 참선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체득했다. 드디어 육신을 괴롭히던 수미가 먼저 항복했고 화두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가 물러갔다. 오로지 화두 하나만 성성했다. 그러한 경계가 산가에서 말하는 백적간두였다.

해암은 며칠 동안 다시 더 나아갔다. 그제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낮과 밤이 하나가 되고, 아침과 저녁이 하나가 됐다. 온몸이 의심머리가 되더니 물록 심안(心眼)이 열렸다. 스님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 깨달음의 계승을 읊었다.



다. 안내문에는 사고의 건물들이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92년에 복원됐다고 쓰여 있었다. 한때 조선왕조실록을 봉안했던 사각으로 들어서자 외부인의 출입을 경계하듯 말벌들이 봉봉 소리 내며 날았다. 현각 거사가 한동안 상념에 잠겨 말없이 걸더니 침묵을 깼다.

“아까 대연 거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삼재를 면하는 명당일 것입니다. 당연히 사고암도 참선 공부하는 수좌들이 좋은 기운을 받는 명당일 것입니다. 큰스님께서 사고암을 찾아와 죽을 각오로 공부하신 것도 명당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무슨 깊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곳에서 화두를 타파하고 오도하지 않았습니까.”

말벌들이 더욱 가까이 날아와 머리 위를 날며 위협했다. 그 바람에 대연 거사는 머리를 숙이면서 조선 왕족의 족보를 보관해온 선원보각 쪽으로 물러섰다. 선원보각도 방치돼 온 듯 마루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대연 거사가 실망하여 투덜거렸다.

“큰스님께서 오도하신 성지 중에서 성지인데 참 무상합니다.”

“아마도 동경대가 반환한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이 이곳에 봉안돼 있다면 이처럼 소홀하게 관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이 없다는 말입니까.”

“실록을 찾아오는데 월정사 스님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록이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서울대 규장각에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대연 거사는 말벌들의 눈치를 보며 선원보각을 나왔다. 입안이 씹혔다. 반환된 조선왕조실록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오대산본의 실록을 돌려주지 않는 서울대의 처사가 몹시 못마땅했다. <계속>

조선왕조 실록 일부 日 동경대서 반환 오대산 사고 ‘주목’

영하 20도 방에서 잣나무 잎과 콩 10개씩 먹으며 장좌불와 정진

넉달 지나며 줄음극복 · 장애 물러가...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상징이자, 무소유의 비유가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부처가 열반에 든 이후 사람들은 불족(佛足)을 조각해 그 앞에 회화하며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던 것이다.

초여름 날찌치고는 더웠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길을 걷는데 이마에 땀이 났다. 멀리 보이는 천나무 길은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지만 아스콘 포장도로는 휘발성분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월정사에도 해암 큰스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큰스님께서서는 주로 상원사나 상원사 산내암자에 계셨습니다.”

“상원사까지는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걸을 수는 있으나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대연 거사는 약속 정소를 잘못 잡은 것을 후회했다. 공연히 월정사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해 시간만 낭비한 셈이었다. 대연 거사가 당황해하자 현각 거사가 말했다.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월정사에도 큰스님의 흔적이 있는 줄 알고 여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월정사와 상원사 중간 지점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史庫)가 있습니까만 거기를 가려면 여기서 승용차를 타고 더 올라가야 합니다.”

대연 거사는 사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하고 놀랐다. 강원도에 있는 사고는 설악산 오세암 부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월정사에서 상원사 가는 중간 지점에 있다니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과 같았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오대산의 사고가 위치할 곳을 어떤 착각에 의해 설악산으로 잘못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오대산 사고’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렀던 설악산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무렵에 해암 스님이 설악산 오세암과 오대산 암자를 자주 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부수니
해가 돌아 하늘과 땅이 밝다.
迷則生滅心
悟來眞如性
迷悟俱打了
日出乾坤明

이러바 오도송도 스님의 성정답게 꾸미는 것 없이 명료하고 단박했다. 오도송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향기로운 인동초 꽃 같았다. 동안계 동안 자갈밭 각오로 용맹 정진한 끝에 얻은 경지였다. 이후 스님은 상좌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수좌와 재가불자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공부하다 죽으리라’고 법문했고, 지금도 원당암 미소굴 옆에는 ‘공부하다 죽으리라’는 주장자 모양의 조형물이 꽃혀 있게 된 것이었다.

현각 거사는 오대산 사고 가는 길을 아는 듯 앞서 나왔다. 대연 거사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사고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오대산 사고 0.9km’라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다. 그 정도 거리라면 느린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았다.

산길로 들어서자 상원사로 가는 큰길은 곧 잊혀졌다. 그만큼 사고 가는 산길 주위도 활엽수와 상목수가 어우러져 숲의 정취가 그윽했다. 오대천으로 흘러드는 남호암골의 계곡물이 발산하는 냉기를 쐬자, 월정사를 지나치며 났던 땀이 저절로 들었다. 대연 거사가 상쾌해진 기분으로 말했다.

“사고는 큰길에 가깝고 물과 불, 바람의 삼재(三災)로부터 가장 안전한 땅에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할까 합니다.”

큰길 가까운 곳에 사고 자리를 택한 것은 사고를

지키는데 승군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오대산 사고도 월정사나 상원사에서 자출한 20여 명의 승군들이 관군과 함께 지켰다고 한다.

오대산 사고.

관심을 끌지 못했던 오대산 사고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일부인 47책이 최근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반환됐기 때문이었다. 오대산 사고에 봉안된 실록은 2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오대산 남호암골에 사각(史閣)을 1606년에 지어 태조부터 명종까지의 실록 초고본을 봉안하다가 1616년에는 <선조실록>, 1653년에는 <인조실록>, 1657년에는 <선조수정실록>, 1661년에는 <효종실록>, 1678년에는 <광해군일기>, 1728년에는 <경종실록>, 1805년에는 <정조실록>을 보충하여 봉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13년 10월 데라우치 총독이 사고의 모든 실록을 강탈해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에 보관하다가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됐지만 대출됐던 47책은 화를 면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고 관리의 총책임자인 실록수호총섭(實錄守護總攝)은 월정사 주지가 맡았으며 수호군 60명에 승군 20명이 사고를 지켰는데, 특히 승군들은 사고사(史庫寺)에 머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고와 선원보각 뒤에 자리한 오늘의 영감사는 사고사의 후신(後身)이 틀림없었다.

흙길이 끝나자, 반반한 돌들이 깔린 산길이 드러났다. 그러나 돌들 사이로 발라진 시멘트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산길이었다. 그 산길 끝에서 사고가 보였고, 바로 옆 영경귀 꽃이 핀 풀숲에서 몽당연필 같은 ‘오대산 사고 수직사(守直舍) 터’라는 표지석이 튀어나왔다.

수직사 터와 그 밑에는 화전 같은 경작지가 보였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돌 아닌 돌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 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원당암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